

저는 예수 그리스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른 어떤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슬람을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무함마드여, 말씀하시오: ‘성서의 사람들아!
우리 사이의 공통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알라만을 숭배하고, 그분과 어떤 것도 동반하지
말자...’”

(꾸란 3장 64절)

작성자:
무함마드 알사에드 무함마드

『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책에서 발췌됨

[Why Believe in the Prophet of Islam, Muhammad (peace be upon him)?]
우리가 지금 논의 중인 제목에 따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른 어떤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슬람을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는 이 말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 왜 이슬람은 ‘획득’이고 ‘승리’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나 어떤 예언자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적인 욕망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전한 정신이 동의하는 바를 따르며, 특히
창조주이신 위대하고 장엄하신 알라(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개인이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알라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사고의 은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걸맞은 최선의 믿음을 추구하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통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 개인은 이슬람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와 이 신앙의 옹호자로
오신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메시지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목격할 때, 이슬람을 얻게 되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은 이슬람의 진정성과 그분의

예언자의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후, 종교로서 이슬람의 축복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증거와 논리적 입증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어린 시절부터 모범적인 도덕적 자질로 그의 민족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그를 예언자직에 선택하신 알라의 지혜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진실성과 신뢰성입니다. 이러한 미덕으로 알려져 그에 기반한 별명까지 받은 사람이 진실성을 버리고 자기 민족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하물며 예언자직과 사도직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둘째: 그의 가르침(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순수한 본능과 건전한 정신과 일치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하나님의 존재, 신성에 있어서의 유일성, 그분의 장엄함,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위대함을 믿으라는 부름.

☞ 그분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인간, 돌, 동물, 나무 등 어떤 것에도)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말 것.

☞ 그분 외에 다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희망하지 말 것.

사람이 "누가 나를 창조했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냈는가?"라고 숙고할 때, 논리적인 대답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낸 분은 의심할 여지없이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어야 하며, 무(無)로부터 창조하고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무언가가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 이 신을 창조하고 만들어냈는가?"라고 물을 때, 답이 "의심할 여지없이 권능과 위대함으로 묘사되는 또 다른 신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 질문을 무한정 반복하고 같은 답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은, 창조에 대한 절대적인 권능을 소유하고 무로부터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창조자나 기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이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분, 독특하신 분, 오직 예배받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알라)께서 잠자고, 소변을 보고, 배설하는 피조된 인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분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동물들(예: 소 및 기타)에게도 적용되며, 특히 모든 것의 운명은 죽음과 부패한 시체로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 참조: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조용한 대화』 (A Quiet Dialogue between a Hindu and a Muslim)』

☞ 하나님을 조각상이나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삼가라는 부르심 —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거나 욕망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 참조:

『불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평화로운 대화 (A Peaceful Dialogue
Between a Buddhist and a Muslim)』

☞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필요성으로부터 벗어나 계심을
인정하라는 부름,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시며 누구에게서도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누구도 낳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둘, 셋,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을 무엇이 막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는 결국 여러
신들에게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다른 믿음들에서 그분께 귀속시킨 혐오스러운 속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정화하라는 부름,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창세기 6: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님을
인류를 창조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회한을 느끼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 [기독교 성경은 유대교 경전을 두 부분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이라고 불립니다]. 행동에 대한
후회와 회한은 오직 결과를 알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 것에서만
비롯됩니다.
- 출애굽기 31:17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한 후 쉬시고, (영어 번역에 따르면) 그분의

에너지를 회복하시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 휴식과 에너지 회복은
오직 피로와 수고로부터만 발생합니다.

📖 참조: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의 비교와 그 중에서의 선택 (A Comparison Between Islam, Christianity, Judaism, and The Choice Between Them)』

☞ 하나님을 인종주의라는 속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유대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신이 아니라는 부름. 인간이 본래 그들의 하나님에 의해 인종주의를 거부하고 혐오하도록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이러한 본래의 성향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이러한 특성을 귀속시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 하나님의 속성의 위대함, 완전함, 아름다움을 믿으라는 부름은 그분의 무한한 권능, 완전한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 신성한 경전, 예언자들, 그리고 천사들을 믿으라는 부름. 이것은 기계와 인간 사이의 유추를 제시합니다. 복잡한 구성 요소를 가진 기계가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 및 사용법을 설명하는 창조자의 사용 설명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는 창조자의 존재를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간도 마찬가지로 사용 설명서와 안내, 즉 그들의 행동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원칙에 따라 삶의 방식을 조직하는 수단 역할을 하는 안내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안내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제공되며, 그분께서는 계시를

전달하도록 맡겨진 한 천사를 통해 율법과 가르침의 형태로 그분의 계시를 전달하도록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지위와 존엄성을 높이고, 덕망 있는 개인의 성품과 양립할 수 없는, 하물며 예언자와는 더욱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믿음들에서 그들에게 귀속시킨 행동들로부터 그들을 정화하라는 부름. 예를 들어:

- 출애굽기 32장에서처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론 예언자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신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숭배하라고 명령했다고 비난하는 것.

롯데 예언자가 술을 마시고 그의 두 딸을 임신시켜 그들이 그를 위해 아기를 낳았다는 그들의 비난. (창세기 19장)

- 전능하신 알라께서 그분과 그분의 피조물 사이의 대사가 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선택하신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알라의 선택을 비판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내의 등불이어야 할 예언자들과 사도들 중에서 본받아야 할 이들을 잘못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분을 미지의 것에 대해 무지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에게 귀속된 그러한 부도덕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추종자들이 그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러한 부도덕함에 빠지고 그것들이 확산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 피조물들이 죽은 후 부활하고, 그런 다음 심판이 있을 심판의 날을 믿으라는 부름. 보상은 믿음과 선행에 대한 큰 보상(영원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며, 불신과 악에 대한 가혹한 처벌(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 의로운 율법과 숭고한 가르침, 그리고 이전 종교들의 믿음에 있는 왜곡을 바로잡으라는 부름.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브(아담의 아내,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그녀가 주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아담을 유혹함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의 원인이 되었다고 귀속시키고(창세기 3:12),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그녀의 후손들에게도 벌을 내리셨다고 하는 반면(창세기 3:16), 성 구란은 아담의 불순종이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즉, 그의 아내 이브 때문이 아님) [수라 알아라프: 19-22]와 [수라 타하: 120-122]에서처럼, 그럼으로써 그 믿음으로 인해 이전 종교들이 여성에 대해 가졌던 경멸을 제거했습니다. 이슬람은 여성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존중하라는 부름과 함께 왔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말씀입니다: "여성을 친절하게 대하라" [사히 부카리], 그리고 그의 말씀(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딸을 가진 자가 그녀를 산 채로 묻지 않고, 그녀를 모욕하지 않으며, 그녀보다 아들을 선호하지 않으면, 알라께서는 그녀 때문에 그를 천국에 들게 하실 것이다" [아흐마드가 전함].

- 전쟁: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린이, 여성, 노인,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살해와 파괴를 요구하는 많은 전쟁 이야기를 언급하는 반면(여호수아 6:21 및 기타), 이는 현대의 살해에 대한 갈증과 학살 및 대량 학살에 대한 무관심을 설명합니다(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쟁에서 이슬람의 관용의 표현을 배신 금지와 어린이, 여성, 노인, 비전투원의 살해 금지에서 발견합니다. 이에 대한 예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말씀입니다: "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을 죽이지 말라" [알바이하키가 전함], 그리고 그는 무슬림과 싸운 포로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해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조:** 『이슬람의 가르침과 그것이 과거 및 현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Islam's Teachings and How They Solve Past and Current Problems)』

셋째: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를 통해 나타내신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사건들 —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우시고 지지하신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기적들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가시적인(물리적인) 기적들** — 예: 예언자의 손가락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온 기적.

이 기적은 믿는 자들이 갈증으로 죽음에 이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비물질적(비물리적) 기적, 예를 들어:**

- 비를 위한 그의 기도와 같은 응답된 기도들.
-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많은 미지의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등의 미래 정복과 그들의 영토 확장에 대한 그의 예언. 그는 또한 팔레스타인의 아스칼론 정복과 가자에 대한 그것의 합병(역사적으로 가자 아스칼론으로 알려짐)을 그의 말씀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너희의 최고의 지하드는 국경을 지키는 것이며, 그 중 최고는 아스칼론에 있다" [알알바니의 실실라투 사히하], 이는 하디스에서 언급된 이 장소가 미래에 큰 지하드의 현장이 될 것이며, 알라의 대의를 위한 인내와 방어를 통해 고귀한 전사들에게 큰 인내를 요구할 것임을 미묘하게 암시합니다. 그가 예언한 모든 것이 실현되었습니다.
-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1400년 이상 전에 많은 과학적 미지의 사실들을 예언했으며, 그 후 현대 과학이 그가 말한 것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그의 말씀입니다: "정액의 방울 위로 42일 밤이 지나면, 알라께서 그것에 천사를 보내시어 그것을 형성하고 청각, 시각, 피부, 살, 뼈를 창조한다..." [무슬림이 전함]. - 현대 과학은 7주째 초반, 특히 수정일로부터 43일째부터 배아의 골격 구조가 퍼지기 시작하고 인간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예언자가 말한 것을 확인해줍니다.

● **꾸란의 기적** — 그것은 심판의 날까지 남아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독특한 문체를 가진 꾸란의 기적(심판의 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웅변적인 아랍인들도 그것의 가장 짧은 장과 같은 단 하나의 장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 성 꾸란은 많은 미지의 일들(과거, 현재, 미래)을 언급했으며, 여기에는 1,400년 이상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현대 과학이 그것이 전달한 것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꾸란의 천문학적 사실들에 대해 깊은 감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들 중에는 일본 도쿄 천문대의 소장인 요시히데 코자이 교수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예는 전능하신 알라께서 우주를 계속 확장하실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예시 중 하나는 다음 꾸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하늘(우주)을 창조하였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확장시키고 있다.” [아드자리야트 51:47]

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학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정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꾸란은 지식과 깊은 숙고로의 부르심이며,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내리신 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라, 창조하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알알라프 96:1]

‘읽는 것’은 지식과 이해의 길이며, 이는 인류가 모든 삶의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 참조:

『이슬람과 현대 과학의 발견들 —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예언자성과 사도직의 증거 (Islam and the Discoveries of Modern Science as the evidence and proofs of the prophethood and messengership of Muhammad (peace be upon him))』

■ 논리적 관찰:

언급된 것은 모든 수준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어떤 예언자나 사도의 신뢰성을 인식하고 따라서 그의 소명과 메시지의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만약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당신은 왜 어떤 예언자의 예언자직을 믿습니까? 그가 보여준 기적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의 기적을 전한 전승자들의 연속적인 증언들 때문입니다.”

✓ 이러한 대답은 논리적으로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를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적들을 전한 연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언들이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의 전기(생애)를 통해 그의 부름의 진실성이 명확해집니다:

1- 그는 항상 자신이 부르던 바를 스스로 실천하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

예: 숭배 행위, 고귀한 가르침, 숭고한 도덕, 경건함, 그리고 이 덧없는 세상에 대한 금욕.

2-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메카 사람들이 제안한 부, 왕권, 명예, 그리고 그들의 가장 고귀한 딸들과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소명(알라의 유일성, 알라에 대한 순수한 예배, 우상 숭배의 포기, 선의 명령, 악의 금지)을 포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 때문에 그의 민족으로부터 받은 극심한 고통, 해악, 적대감, 박해, 그리고 이후의 전쟁들을 견디어냈습니다(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3-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공동체에게 자신을 찬양하는 데 있어 과장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과하게 칭송하지 말라, 기독교인들이 마리아의 아들을 과하게 칭송한 것처럼. 나는 단지 한 명의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자 그분의 사도’라고 말하라.” [사히흐 알부카리]

4- 하나님께서는 그분(예언자)을 보호하셔서 그의 메시지를 완전히 전달하게 하였고, 마침내 이슬람 국가를 세워 그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 이 모든 증거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 우리는 신명기(33:2)의 "그가 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왔다"라는 구절이 아랍어 성경 텍스트에서 [그가 바란 산에서 빛을 발했다]라는 구절 뒤에 생략되었음을 주목합니다.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한 예언과 유사하며, 마치 태양이 떠오르고 그 빛이 지평선에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21:21)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 이스마엘 - 는 바란 광야에 거주했다", 그리고 이스마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히자즈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연속적인 전승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란의 산들은 메카에 있는 히자즈의 산맥입니다.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만 명의 동료들과 함께 유혈 사태 없이 정복자로서 메카에 왔을 때 그 백성들을 용서한 것에 대한 명백한 언급입니다. 이 생략된 부분 [그가 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왔다]은 킹 제임스 버전, 미국 표준 버전, 그리고 증폭 성경에서 확인됩니다.

➤ 또한, (시편 84편 6절)의 순례자 찬송에서 ****(바카, Baca)****라는 단어가 아랍어 본문에서 교체되어, 예언자 무함마드의 고향인 (메카)에 있는 카바 순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메카)는 (바카)라고도 불립니다. 이 단어는 성 구란의 [알-임란: 96]절에 ****(바카)****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 본문은 킹 제임스 버전(King James Version) 등에서 ****[바카 골짜기, valley of Baka]****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바카, Baka]****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 고유명사임을 나타내며, 그리고 고유 명사는 번역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참조: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임이 틀림없다 (Muhammad – Truly the Prophet of Allah)』

■ **이슬람의 중용성과 보편성:**

이슬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을 믿도록 부르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 이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특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 온건함을 가지고 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그리스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문제를 다루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 그리스도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의 예언자적 신분, 그의 기적적인 탄생, 그리고 요람 속에서 말한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그의 어머니에게 음행을 저질렀다고 비방한 것에서 그녀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녀를 존귀하게 하시며, 훗날 그의 예언자성과 사도직(사명) 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유대교의 과오 — 즉, 그리스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그를 모욕하며, 그의 탄생을 간음으로 돌리고, 그의 어머니를 음행했다고 모욕하는 — 와 기독교의 과도함과 과장 — 즉, 그에게 신성을 부여한 — 사이의 가장 논리적이고 중용적인 입장입니다.

■ 이것을 이성적 관점에서 명확히 하는 것:

✓ 순수한 본성과 건전한 정신이 인간 본성과 동물 본성의 결합 요구(예를 들어 인간과 소나 다른 동물들과의 결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반은 인간이고 반은 소인 존재와 같이 두 본성을 결합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격하이자 평가절하가 될 것입니다. 비록 둘 다(인간과 동물) 피조물이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본성과 건전한 정신은 신적 본성과 인간 본성의 결합을 요구하여 신적 본성과 인간 본성을 결합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격하시키고 폄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그 존재가 은밀한 부분에서 태어났고, 특히 그 믿음이 모욕과 굴욕(침 뱀기, 뺨 때리기, 옷 벗기기 등) 후의 십자가형, 살해, 매장을 포함한다면, 그러한 굴욕적인 믿음은 위대한 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 순수한 본성과 건전한 정신이 인간 본성과 동물 본성의 결합 요구(예를 들어 인간과 소나 다른 동물들과의 결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반은 인간이고 반은 소인 존재와 같이 두 본성을 결합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격하이자 평가절하가 될 것입니다. 비록 둘 다(인간과 동물) 피조물이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본성과 건전한 정신은 신적 본성과 인간 본성의 결합을 요구하여 신적 본성과 인간 본성을 결합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격하시키고 폄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출생이 여성의 성기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특히 그 믿음이 모욕과 굴욕(침 뱉기, 뽀뽀하기, 옷 벗기기 등) 후의 십자가형, 살해, 매장을 포함한다면, 그러한 굴욕적인 믿음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 그리스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음식을 먹었고 용변을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묘사하거나, 잠을 자고, 소변을 보고, 배설을 하며, 뱃속에 더럽고 불결한 배설물을 담고 있는 피조된 인간에게 성육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Retry

✓ 작고 제한된 그릇이 바다의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의 자궁에 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것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죄라 할지라도 짊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것은 기독교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는 부모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신명기 24:16), 또한 "죄를 짓는 자가 죽을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죄책을 나누지 않을 것이며, 부모도 자녀의 죄책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자의 의는 그들에게 인정될 것이며, 악한 자의 악은 그들에게 부과될 것이다" (에스겔 18:20). 또한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의

아버지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짊어지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죄의 개념은 성경의 진술 자체에 근거하여 거부되며, 따라서 속죄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기초한 결함이 있는 개념입니다.

✓ 아담의 불순종(단지 금지된 나무에서 먹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형과 살해를 요구한다고 가정하면, 왜 십자가형과 살해가 죄를 지은 아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 설교자이자, 의로운 교사이며, 경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헌신적이었던- 를 위한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태로 화신했다고 주장되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한다는 주장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 아담 이후 인류가 저지른 주요 죄악들과 범법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인간 형태로 하나님의 새로운 십자가형과 살해를 요구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인류는 속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천 명의 그리스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회개하고 그의 불순종을 후회하는 한) 다른 죄들처럼 아담의 불순종을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으신가요? 확실히,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주장이 그의 아버지 없는 탄생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창조된 아담(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만약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주장이 그의 기적들에 기초한 것이라면, 많은 기적들을 행한 예언자 무함마드와 다른 예언자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도 신적이라고 주장됩니까?! 확실히 아닙니다.

■ 또한 중요한 논리적 명확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적 구속자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죽을 수 있는 것이든 불멸의 것이든, 다음은 명확합니다:

1. 만약 그리스도의 본성이 죽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신이 아니며, 따라서 그가 동시에 신이자 구속자였다는 주장은 무효입니다.

2. 만약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가 신이기 때문에 불멸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죽지 않았으며, 따라서 속죄는 없었습니다.

•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인간 형태로 두 본성을 결합한 존재를 생산하기 위해 신적 본성과 인간 본성의 결합에 대한 믿음의 무효성에 대해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한 것은, 인도의 크리슈나, 동아시아 사회의 부처, 그리고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보다 오래된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의 호루스와 같이, 다른 사회들이 다른 시대에 주장한 것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이 믿음은 고대 국가들의 신조에서 차용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 신화들, 전설들로 묘사된- 신적 계시나 이성적 증거에 대한 건전한 근거 없이 말입니다.

■ **설명:**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신성을 주장하지만, 예수께서 복음서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다” 또는 “나를 예배하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여기거나 숭배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마태복음 21장 11절: “우리가 이르되,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 이는 예수가 예언자로 불렸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또한 예수께서 기도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 그분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기도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에게 절을 올리며 기도하셨습니까?

-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바로 이것이 이슬람에서의 기도 방식입니다 — 이슬람은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를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존중하며, 그가 가르친 참된 방식(하나님께 절하고 순복하는 기도)을 따릅니다.

✔ 그리스도는 또한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로 서로 인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요한복음 20:21, 26). 이것은 이슬람의 인사이며, "앗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응답은 "와 알라이쿰 앗살람"입니다.

✔ 많은 이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설명:**

- 거룩한 꾸란에는 수라 마르얌이라고 불리는 완전한 장이 있으며, 이는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를 존중합니다.

-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의 지위를 높이며, 그를 알라께서 보내신 고귀한 예언자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가져온 이슬람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들을 참고하십시오: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조용한 대화』 (“*A Quiet Dialogue Between a Christian and a Muslim.*”)

『왜 이슬람을 종교로 선택해야 하는가?』 (“*Why choose Islam as a religion?*”)

■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알라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다는 명백한 이치와, 순수한 영혼이 고귀한 신념을 추구한다는 점에

부합합니다. 그렇기에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초청과 이슬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통해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 당신은 왜 진심으로 이슬람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질문의 답—특히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알라(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신앙과, 진리를 찾기 위한 선택에 대해 알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슬람을 선택함으로써, 나의 모든 질문에 논리적이고 쉬운 답을 제공하고, 어떤 특정한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이성을 강요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자연의 본성에 부합하고 명백한 이성과 논리적 사고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방식으로—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과 존경을 유지하며, 이슬람에서 그리스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매우 높고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그녀에게 평화가 있기를) 또한 마찬가지로이며, 내가 어떤 예언자에 대한 믿음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알라께서 우리 모두를 선과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